

5. 신행

# 만해 스님 개혁론은 진행중

## #조선불교유신론 저술의 의미

만해 스님이 백담사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한 지 벌써 100년이 됐다. 그 후 3년이 지나 1913년 발간됐으니 한국불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그럭저럭 한 세기가 된 셈이다.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근대는 새로운 시대의식을 여는 격변의 시대였다. 불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던 수행자들은 개항 이후 축적된 시대인식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만해의 <조선불교유신론>을 비롯한 1912년 권상노의 '조선불교개혁론(朝鮮佛敎改革論)'과 1922년 이영재의 '조선불교혁신론(朝鮮佛敎革新論)'이 여기에 해당된다. 모두가 한국 불교계가 처해 있는 시대와 불교계의 내재적 모순점을 파악한 다음, 무질서를 바로하고 유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단을 정비해 그 총체적인 힘이 사회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들은 전근대적 불교의 개혁을 주장한 셈이다.

조선조부터 시작된 수행자의 신분적인 하락과 사원경제의 몰락은 불교를 기복신앙으로 전락케 했다. 이런 경향은 불교의 본질과 이미지를 저하시켜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게 했다. 그 결과 민중들은 자제한 내용을 몰라도 진언을 독송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신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또한 내세적 신앙관의 형성으로 만일염불화와 같은 염불신앙이 행해지게 되었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보이고 있는 기복적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개항이 단행되자 한반도에는 서구 사조와 외래 종교 등 소위 신문물이 몰입 듯이 들어왔다. 이때 불교는 사찰은 곤궁했고, 출가자는 하천한 신분으로 천대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승려의 자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개항 이후 나타난 사회의 급속한 변모는 한국 불교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시대에 맞는 정체성 확립과 대중적 성향에 맞는 포교의 혁신이었다. 그런 개혁의 가치를 높인 것이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이었다.

만해 스님은 개혁이란 자신이 처한 시대의 모순을 직결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응하는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그가 개혁하고자 했던 한국불교의 모순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기존 사찰이 자리한 장소의 비효율성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불교의 교육과 사회적 위상, 그리고 불교의례의 비실용적인 면 등으로 요약된다.

## #한국불교 신행과 민해의 신행관

한국사회에서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 그 역사의 장구함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산업화로 전환된 후 한국불교의 흐름은 결코 타



1931년 3월 중앙선원(현 선학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수좌대회 사진. 이 대회는 선통 진작과 남자들의 결속을 위해 열렸다.

## 조선조 사원경제 몰락은 후대에 기복신앙 불러와 불·보살의 소상·소회 통합해야 발전한다 주장

종교에 비해 우월성을 주장할 만큼 특별하지 못하다. 현대에 이르러 동안 내재적 역량을 쌓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100년 전 우리에게 던져진 만해 스님의 개혁론은 아직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앙적 자세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만해 스님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한국불교의 신앙적 자세가 굳건하지 못한 것은 신앙의 대상이 많은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런 대상을 향한 의례 역시 개선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해 스님이 정의한 불교의례는 신앙의 대상인 소상(塑像)과 소회(塑繪) 그리고 대상을 경배하는 의식을 총칭하는 것이었다. 만해 스님은 그런 한국불교의 신앙 대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만해 스님은 소회가 중생의 사료로서 기능은 크지만 그것이 길흉화복을 비는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의례가 불법의 본질로 인식될 때 소회의 기능은 불교의 본래성을 전복하는 미신이 되고 만다고 생각했다. 소상은 현상의 거짓 모습이며 현상은 진리의 거짓 모습이라는 것이다. 만해 스님은 거짓 모습의 소상이 오래 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존재하는 현상을 따라 마음이 그릇된 곳으로만 흐르고, 여러 가지의 거짓 모습을 만들어 객관화했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은 그런 소상과 그림에게 화복을 빌

고 길흉을 묻는 것은 민중의 지혜가 미개한 탓이라 주장했다. 인간의 화복이란 자신이 불러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허황하고 신통치 않은 소상 앞에서 하인처럼 무릎을 꿇어 아첨하는 것은 불교의 본뜻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로 보았다.

이어 만해 스님은 한국불교 의례의 번잡함을 들었다. 의례는 간략해 번잡함이 없어야 하는데 근대 한국불교의 의례는 그렇지 못해 그 폐단이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여러 의례 가운데 천왕·조왕·산신 등을 난신(亂信)이라 혹평하며 마땅히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불교의 신앙정립을 위해 불·보살의 소상과 소회의 통합을 주장했다. 그것은 서로가 이름은 다르지만 이치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이었다. 통합에 있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로는 여러 부처님의 뜻을 이끄는 증생들을 섭수하여 제도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그분의 사상적 유산을 각자의 생활에 옮긴다면 불교의 개혁은 자연히 따라올 것으로 예견했다.

김경집

진각대학원대학교 교수



## 만해와 문학

# 한국 근대문학의 한 획을 긋다

만해 스님은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만해 스님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고자 문학적 저항의 전범을 보였는데 이러한 저항문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군사정권과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비판하는 참여문학의 큰 줄기로 이어진다.

만해 스님의 이러한 문학성은 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설, 수필, 한시 등 다방면에 걸쳐 전개된다. 스님의 이러한 문학적 소양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졌다. 1879년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6세 때부터 한학 공부를 시작한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친 한응준에게 구국열사들의 일화를 들으며 민족정신을 자각했다. 스님의 성장과정은 문학 창작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문학적 성취를 이루고 민족정서를 나타내는 글을 남기는 데 근간이 됐다.

현대에는 이러한 스님의 민족지성으로서의 모습과 끊임없는 실천과 행동을 이어받았자 축전과 문학상 등이 제정돼 열리고 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1997년부터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2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국내외 문인, 학자, 종교인,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만해축전을 개최하고 있다. 남북, 좌우를 초월하는 만해정신의 선양과 가치정조를 잇는데 중점을 둔 만해축전은 문학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성향인 '한국작가회의'와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인 '한국문인협회'가 만해축전에서 함께 모여 문학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문학축

전이란 명칭에 맞게 매년 축제기간 동안 만해마을은 문인들의 친교의 한마당으로 변모한다. 특히 유심작품상·유심신인문학상·유심시조문학상·전국고교백일장·님의집 뒤 군사정권과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비판하는 참여문학의 큰 줄기로 이어진다.

이밖에 유심문학상은 시조부문을 별도로 시상하고 유심시조백일장 유심신인문학상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신인들을 등단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전통시부분인 '시조문학'을 다시 살리는데 건

포 1973년 민족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장비사대표 고세현)가 만해문학상을 제정해 매년 10년 경력 이상의 작가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있다. 만해문학상은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과 함께 주요문학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1920년 만해 스님이 창립한 조선불교청년회의 맥을 이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응정)는 청년들의 민족정신 함양을 위해 매년 3·1절 등국대 등에서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 31회를 맞은 전국만해백일장은 시와 시조, 산문 분야로 나뉘어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 주부부에 걸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백일장이다. 최고상인 만해대상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노덕현 기자

## 6세부터 한학 공부 9세에 '서경' 통달

## 만해축전·만해문학상 등 스님 기려



동국대 만해광장의 만해시비.

## 글 읽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종단 및 사찰운영
5. 신행
6. 교육
7. 계율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 불교서적총판

# (주) 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남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초기불교에 대한 개론서이자 본격적인 해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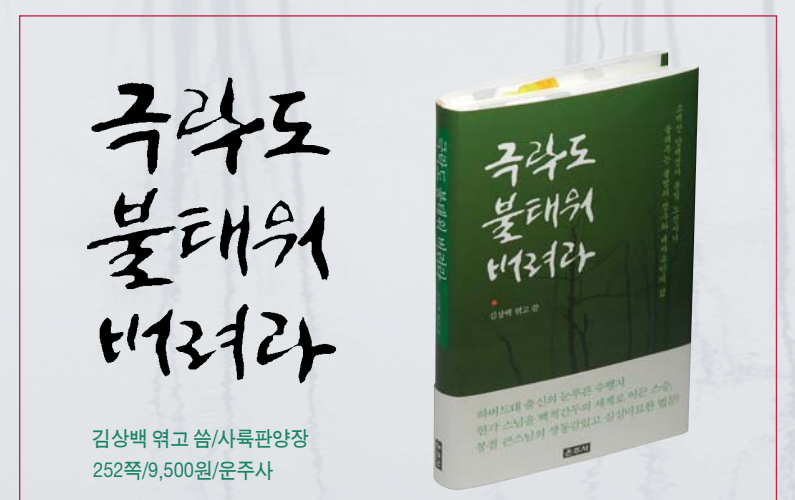
이 책은,

- ① 한역 경전이 아닌, 빠알리 '삼장'을 토대로 한 초기불교 개론서이다.
- ② 빠알리 '경장'에서도 4부 니까야를 토대로 하였다. 부처님의 원용과 직계 제자들의 육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 ③ 특히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심도 깊게 다룬 경들을 모은 '상앗따 니까야'를 중심에 두었다.
- ④ 초기불교에 대한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라 초기불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본격적인 초기불교 교리서 혹은 초기불교 해설서이다.
- ⑤ 철저하게 '정정도론'과 '아미달마 길라잡이'와 주석서 문헌들을 의지하여 필자의 주관에만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 허버드대 출신의 눈부른 수행자 현각 스님을 백척간두의 세계로 이끈 스승, 봉철 노선사의 생동감있고 심심미묘한 법문

수개월, 수년이 지나가는 동안 나는 스승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소백산 작은 암자에서 매일 아침 및 시간씩 집중적으로 참선을 하였습니다. 봉철 큰스님은 정말이지 수행을 위해 나를 절절 끝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좋다, 나쁘다' '성스럽다, 속되다' '맛다, 틀리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 라는 나의 차별심에 대해 참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봉철 큰스님의 가르침과 신행법, 그리고 본분사本分事에 대해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현각 스님)

## 노선사가 들려주는 불법의 정수와 대자유인의 삶



김삼백 엮고 씀/사륙판양장 252쪽/9,500원/운주사